



어느 날 퇴근길, 남자는 리어카에서 파는 삼천원짜리 귀고리 한쌍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내밀자 아내는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달아 보며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도 덩달아 기뻐하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번 월급날에는 멋진 옷 한 벌 사 줄께!" 싸구려 선물에도 감격하며 좋아하는 아내에게 무안함을 감추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월급날인 오늘! 남편은 빈 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월급봉투만을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월급을 받아 들고 부푼 마음으로 백화점엘 갔으나 생각보다 엄청난 가격에 입만 벌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옷은 월급의 절반도 넘어 도저히 살 엄두를 낼 수 없었다며 몹시도 미안하고 안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 보았습니다.

아내는 풀이 잔뜩 죽어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시장에 가면 그런 옷 말고도 싸고 예쁜 옷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값비싼 옷은 훗날 제가 나이가 잔뜩 들어 늙고 추해 보일때, 그 때 입으면 돼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금새 생기를 되찾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가도 그런 옷은 못 입겠네. 세월이 아무리 흐른 뒤에라도 내 눈에 보이는 당신은 항상 젊고 예쁠 테니까 말이야."



◀그면 그랬지▶ 주변

일주일마다 두 사람씩 돌아가며 하던 "주변"은 물 떠다놓기, 칠판 지우기, 지우개 털기등 교실의 온갖 허드렛일이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조희나 체육시간이면 교실을 지키기 위해 교실에 남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저 번호순서대로 하던 주변인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것인양 주변 명찰을 달고 버스 타고 집에 까지 가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학급일지'를 쓰는 것도 주변의 몫이었죠.

"주변! 물떠와", 주변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던 말.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손때 묻은 주변 명찰 달고 친구들이 호령하는 소리를 정겹게 들으며 다시 물 떠 나르고 싶습니다. '국민학교'라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한 곳에서.....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비보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6권 5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2월 1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보이지 않은 의로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제는 은밀하게 하여 사람의 각종 피드백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원손도 모르게 하여 스스로 칭찬하는 것마저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하여 필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중언부언은 이방인의 몫입니다.

사람을 의식해 은밀함이 깨지면 기도예 군살이 붙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기도하면 주기도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금식은 은밀하게 하여 주님께만 발견되어야 합니다. 금식기밀이 누설되면 굶식의 부작용만 남습니다.

보물은 은밀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진 보물은 종이나 동록의 밥입니다. 은밀한 천국에 보물을 두어야 합니다. 보물을 세상에 두는 것은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여진 구제, 기도, 금식, 보물은 이미 땅의 것입니다. 은밀한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의 감동과 시선과 부러움과 박수에 노출된 자기의는 그것들에 종속되어 금새 상하고 변질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분초마다 은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 심판의 열매를, 천국의 상급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은밀함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의 침묵입니다. 광명중에 밝히 드러내실 때까지!!

◀남편 기 살리는 말▶

"아이가 당신 닮아서 저렇게 똑똑 하나봐요"

◀남편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지 애비 닮아가지고!"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 왜 이리 예뻐졌어?"

◀아내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세수는 했어?"

(* 표에 형이서시기 어려움 혹은 없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예배

다 란 이

"Calvary"

영광송 Gloria

회개기도 Confession Pray

홍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리라

*찬송 Hymn

29장

다 란 이

3(장연 3장)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어린이시간 Sunday School

찬송 Hymn

519장

다 란 이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계시록 2:1-7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성가대성가대

설교 Sermon

가장 중요한 것을 읽은 믿음

김성국 목사

회개 기도 Offering Pray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다윗 근세라'
(1절:이종인 목사 가창, 2절:다란이)

다 란 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2월의 예배위원◆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를 갖습니다)

1	정희자	김진근	이종인	원수진	최영영	최정원
8	지찬영	김정애	김영진	이수자	최재화	최원철
15	최재화	김원자	백제호	장우진	원석홍	장덕영
22	원석홍	마영숙	김수진	홍영진	고성원	권영림
29	김교현	박영민	원영민	김정규	원정현	김정규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창6:22)
*말씀대로 하면 손해본다. 그래도 삽어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청년부:토 저녁 7시

1.교우소식
<한국귀국> 송용철 전사(6일) 그동안 예배사마다 늘 제자라지 키키며 열사의 사서던 모습이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반공후 귀국> 김 병학동반 한국을 방문하였던 교우들께서 많이 돌아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시온성가대 단조적> 송형권 전사.
<특별하사를 함께 기뻐합니다>
*김수진 전사(8구역/3년) 운영진 전사(4여).민정.상훈
☎ 832-3223 ☐ 27 Rush Creek Dr. Massey
*김용현 전사(3구역/2여) 문미.채은 ☎ 443-8115 ☐ 67 Bruce Rd. Glenfield.
2.정기원회 <일시> Tea Time 후, 유아실
3.정기구역예배 <일시> 5일(목) 저녁 7:30
*이번 달은 목요일에 구역예배를 가지주시시오. 윤후일(Waitangi Day) 전 날 맑은
마음도 여유로움 됩니다.
4.권사기도회: 예배 후 유아실
5.뉴질랜드장로교 한인목회자협의회 주관 "연합교사간담회"
*<일시> 2월 1일(주) -3일(화) 매일 저녁 7시
<장소> 오를랜드 한인교회(Henderson) <대상> 아동부.학생부 교사
6.2월의 교회력

1	당회(1)	권사기도회(1)	민중의 어머니기도회(9)
8			식사권교주회
15			특별성가대(1여)
22	사순절 시작(25)	영어성경쓰기시작	
29	이삭종기주회		

▶시편을 ▶ 비 오는 날
내 이럴 것 - 김성국 -
오름 마려워 눈 떠진 새벽,
스피드는 소리처럼 빗소리를 드리면
하루런 건 우산쓰고
학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린 룩의 부끄러움부터 잊었다
이제 전야 곳곳에
저등우산, 울림우산에 룩포우산까지
우산이 넘쳐 난다

꼭꼭 험차게 내리는 어제 여름비
에 교회간판 튀기, 세차하기, 낙수
물에 발목 잠그기.....물이 쏟아지
는 비에 우산 쓰고 한 일이 참 많
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비 그친 개롱가에
서 산태기로 미꾸라지 잡던 추억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빈약한 우산의
기억도 늘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
역도 추억으로 바뀐 생각할 나이드
여도 추억을 많이 갖게 해 주는 것
도 아버지의 의무처럼 다가왔습니다